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 년을 입을 떠나 해도(海島)에 유배되니
㉠ 내 언제 무심하여 입에게 득죄했나
입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못 여자로다
유한한* 이내 몸을 음란하다 이르로세

(중략)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오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입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입이 거의 아니 곱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蓮)으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놀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뚫아 건너
옥루(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셔
일당우불에 수답이 여향하니*
가까이 다가앉아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멀리서 들려오는 어촌의 닭 울음에 긴 잠을 깨어나니
㉡ 우리 입 금옥(金玉) 같은 음성이 귓가에 의연하고
우리 입 어로향*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유한한: 조용하고 그윽한. 여성의 훌륭한 인품을 뜻함.

* 장문부: 한나라 진 황후가 황제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황금 백 근을 주고 얻었다는 글.

* 일당우불에 ~ 여향하니: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

* 가까이 ~ 이러한가: 모함을 받아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한나라 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을 말함.

* 어로향: 임금의 향로에서 나는 향기.

(나)

임 그러 생각하고 푸른 요 짙고 꿈을 꾸니
외로운 영혼이 입에게 가 있더니
살뜰히 원수의 꾀꼬리로 말 못하고 깨었네 <제1수>

깨어 일어나 앉아 꿈 일을 생각하니
끊임없는 눈물이 두 볼에 진주로다
이 진주 진짜 진주와 저 임의 집에 보내고저 <제2수>

보내거든 아실까 내 정성 아실까
임도 나 같으면 일정 내 뜻 아시려니
만일에 내 뜻과 다르면 분명 대소(大笑) 하리라 <제3수>

대소 마시고 내 정성 아소서
무슨 장부로 이리도록 이러커니
얼굴은 옛 얼굴 있어도 일촌간장은 썩은 지 오래거다 <제4수>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이 없게 되게

㉢ 죽어 진토(塵土)가 되다 이 마음 썩을손가
두어라 정성이 감천하야* 지하에 가 보새이다 <제5수>
— 이복길, 「오련가」 —

* 감천하야: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다)

젊은 시절에는 과연 나도 허황된 명성을 연모하여,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잠시 예찬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얻은 ㉣ 명성이란 겨우 송곳 끝만 한데 쌓인 비방은 산더미 같았으니, 매양 한밤중에 스스로 반성하면 입에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명성과 실정의 사이에서 스스로 깎아내리기에도 겨를이 없거늘, 더구나 감히 다시 명성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명성을 위한 벗은 이미 나의 안중에서 떠나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이익과 권세라는 것도, 일찍이 그 길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요. 대개 사람들은 모두 남의 것을 가져다 제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하지, 제 것을 털어 내서 남에게 보태 주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명성이란 본시 허무한 것이요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어서, 혹은 쉽게 서로 주어 버리는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과 실질적인 권세에 이르면 어찌 선뜻 자기 것을 양보해서 남에게 주려 하겠습니까.

그 길로 바빠 달려가는 자들은 흔히 앞으로 엮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기 마련이니, ㉤ 한갓 스스로 기쁨을 가까이 했다가 옷만 더럽힌 셈입니다. 이 역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비열한 논리라 하겠지만, 실상은 분명 이와 같습니다. 또한 진작 형에게서 이런 충고를 받은 바 있어, 이익과 권세의 이 두 길을 피한 지가 벌써 십 년이나 됩니다.

내가 명성·이익·권세를 좇는 이 세 부류의 벗들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눈을 밝게 뜨고 이른바 참다운 벗을 찾아보았더니, 대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벗 사귀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벗을 사귀기란 확실히 어려운가 봅니다.

하지만 어찌 정말 과연 한 사람도 없기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잘 깨우쳐 준다면 비록 돼지 치는 종놈이라도 진실로 나의 어진 벗이요, 의로운 일을 보고 충고해 준다면 비록 나무하는 아이라도 역시 나의 좋은 벗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이 세상에서 내게 벗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돼지 치는 벗은 경서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어렵고, 나무하는 벗은 손님과 주인이 읍양하는* 대열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금을 더듬어 보면서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 한 번 만나 보아 서로 거리낌 없이 회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리를 멀다 아니 하고 찾아가고 말겠습니까만, 형도 이런 벗을 아직 만나 본 적이 없는 게 아닌지요? 아니면 영영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서 끊어 버렸는지요? 지난날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한 적이 없었기에, 지금 마침 한 가닥 울적한 마음이 들어 우선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 박지원, 「답홍덕보서 제이」 —

* 읍양하는: 예를 갖추어 공손하게 인사하는.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공간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대상을 보는 여러 관점을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제시하여 자연 풍경의 변화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만나고 싶은 대상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속사미인곡」은 사대부인 작가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쓴 작품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연군(戀君)의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겪는 시련과 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는데, 작가의 간절함을 나타내고자 장면에 따라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당쟁 속에서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된 일에 대한 억울함과 유배된 작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못 여자’가 ‘질투하’여 ‘음란하다 이르’었다고 한 것은 작가가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이내 몸을’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곱어볼까’라고 한 것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임금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옛 잘못’에 대해 ‘근본을 생각하면 임 위한 정성일세’라고 한 것은 작가가 자신의 시련이 임금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눌 위하여 단장할꼬’라고 한 것은 작가가 지닌 연군의 마음이 임금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드러낸 것이겠군.
- ⑤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라고 한 것은 유배된 작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겠군.

20.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 ② <제2수>의 중장에서는 초장에 제시된 상황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③ <제3수>의 초장에서는 <제2수>의 종장에 제시된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드러난다.
- ④ <제4수>의 초장에서는 <제3수>의 종장에서 가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제5수>의 초장에서는 <제4수>의 종장에 드러난 화자의 고통이 심화되어 나타난다.

21.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닭’은 (나)의 ‘피꼬리’와 달리 꿈속에서의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 ② (나)의 ‘진짜 진주’에는 (가)의 ‘치마’와 달리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③ (가)와 (나)의 ‘얼굴’은 모두 화자의 처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가)와 (나)의 ‘꿈’에는 모두 현재 상황에서 화자가 갖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 ⑤ (가)의 ‘옥루’와 (나)의 ‘지하’는 죽음 이후에 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22. ㉠~㉣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과장법을 사용하여 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대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과거에 추구했던 것이 초래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한 가치를 좇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다)는 박지원이 벼 사궐을 소재로 하여 홍대용에게 쓴 서간문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당대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참된 벼 사궐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잠시 예찬을 받은’ 경험을 ‘허황된 명성을 얻모’했기 때문이라 한 것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글쓴이의 반성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모두 남의 것을 가져다 제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한다고 한 것은 ‘이익과 권세’를 중시하는 당대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벼 사궐은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벼를 사궐기란 확실히 어려운가 봅니다’라고 한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벼 사궐에 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신분이 낮은 이들조차 자신과 참된 벼 사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서로 거리낌 없이 회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리를 멀다 아니 하고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참된 벼 사궐에 대한 글쓴이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낸 것이겠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나)

큰일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천기누설이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 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제 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랴.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에 지은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

세상에 못 맺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떠꺼머리, 너는 ㉢ 무엄하게도 알아 버렸구나.

길 비켜라.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 준엄한 힘 앞에
세상의 지위썸은 한낱 재미에 불과하리.

지금은 오후 두 시,
그대의 선덕은 ㉤ 이미 온몸이 흔들려
다보탑 아래 껌박 잠든 지귀에게 가 있느니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
네 가슴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

—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마지막 연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준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시간적 표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물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② ㉡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을 활용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에 대한 질책을 드러낸다.
- ④ ㉣을 활용하여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을 드러낸다.
- ⑤ ㉤을 활용하여 선덕 자신의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해 단념한 상황을 드러낸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가)는 토끼가 유혹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가)는 두 설화를 재구성하여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노력과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가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그를 동정하여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변용하여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설화를 연결한 것으로, ‘토끼’는 일제 강점기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귀토지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목에 멧돌을 달고’는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았다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귀의 마음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큰 불이 일어’서 ‘신라땅 모든 사슬 끊어 버려라’는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 설화를 변용한 것으로,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24 혹은 5454번의 전화번호를 보디에 커다랗게 써 붙인 삼륜차 또는 픽업이 대충 비슷비슷한 내용물들을 실은 채 속속들이 당고 있었고, 검색 유니폼의 관리인들이 요소요소마다 늘어선 채 똑같은 말들을 외쳐 대고 있었다. 일테면,

[A] “차는 현관 옆으로 바짝 붙여 주십시오!”

“호실 키는 임시 관리 사무소에서 입주증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는 217동과 219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혼잡하오니 도착순대로 짐을 올리시고, 화장실 및 주방의 부착물은 248동과 249동 간에 위치하고 있는…….”

삼륜차 위에서 나는 한동안 멍청하게 흔들리고만 있었다. 수백 수천의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군과** 그리고 그 협곡 사이사이마다 출렁이고 있는 입주자들의 행렬……. 그것은 실로 기이한 대조였다. 나는 무거운 압박감과 마음 붙일 곳 없는 황량함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가움, 견고함, 메마름, 췌내 따위**를 나는 그 엄청난 규모의 기하학적 공간에서 **무겁게 의식**했고, 또 한편으로는 흡사 피난 행렬과도 같은 입주자들의 행렬에서 우리들의 저 은밀하고 곱팡내 나는 개인적 삶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 듯한 황량함을 현기증나게 맛보아야만 했던 것이다. 냉엄한 질서와 유약한 삶 — 결코 동질적일 수 없는 이 양자의 만남이 무언가 엄청난 현상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나는 무섭게 예감했다.

[B] 나는 실없는 웃음을 비실비실 흘리기 시작했다.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달라붙었던 저 여럿한 감정이 일종의 형언키 어려운 계면적응으로, 그것이 다시 모호한 부끄러움으로 내 전신을 휘감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즐거움은 컸다. 비록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이기는 할망정 저 일반 독립가옥에서의 셋방살이와는 사정이 한결 달랐기 때문이었다. 두 개의 방과 좁은 마루와 그리고 부엌과 다용도실과 수세식 변소 하나가 전부인 열서너평의 공간이기는 했다. 하지만 바깥 계단 쪽의 문만 닫아걸면 실로 자유스러운 생활 공간이었던 것이다.

“주인택에 인사치레를 하지 않는 것만도 마음 편해 좋겠다야.”

이삿짐을 날라 준 친구가 잘도 지적했듯이 그 열서너평의 공간 안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이사를 들 때마다 주인에게 각듯이 인사를 닦아야만 하던 고역으로부터 나는 풀려났고, 부잡스러운 **내 아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까지 몽땅 포함하여 아내의 즐거움은 참으로 커다란 것이었다. 옆에서 보고 있기가 민망스러울 만큼 아내는 우리가 차지한 그 열서너평의 공간에 감격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풀어 오른 아내의 마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나의 저 모호한 감정 — **쑥스러움이라 할지, 부끄러움이라 할지, 또 혹은 일말의 수치심이라고나 할지, 명확히 종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을 은밀히 숨겨 둘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중략)

그런대로 아내는 서서히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 가는 듯했다. 1주일에 한 번씩 물걸레로 계단을 닦고 공휴일 아침에는 화단의 휴지들을 주워 내며, 매월 1일엔 새마을 청소를 위해 같은 현관 안에 사는 열 세대의 주부들과 함께 합동 작업을 벌이곤 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은 이미 가가호호

의 출입문 안쪽에 나붙어 있었고, 그 밖의 공지 사항들은 반상회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수시로 전달되었다. 어머니회가 만들어지고 어머니 배구팀이 창단되고 어머니 합창단도 조직되었다. 폐쇄된 버스 정류소 부활을 위한 연판장 운동이나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자선 요리 강습회 또는 쓰레기통 공동 소독을 위한 회합 등 각종 모임도 빈번해졌다. 모든 정보들—일테면 부동산 시세며, 새로운 가전제품이며, 의상과 헤어스타일, 하다못해 당일 슈퍼마켓의 찬거리 종류와 값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토요일 저녁엔 콩치 통조림이 동나고, 일요일 낮엔 돼지갈비가 불티났다. 앞의 경우는 다음날 야외로 행락 갈 사람들 탓이고, 뒤의 경우는 휴일에도 방구석에서만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은 단지가 죽은 듯 조용한 대신,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떼 지어 단지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처음 한동안 나는 실로 기이한 눈길로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 아내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서 종당엔 그 동일한 가락속으로 거침없이 사랑살랑 해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또 한 번 **실없는 웃음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유의 아파트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내가 어느 정도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그 무렵부터였다.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인 첫째 녀석이 언젠가, 막 귀가한 나를 잡고 때를 썼던 것이다.

“홈런왕 사 줘 아빠. 나두 홈런왕 사 줘.”

녀석이 하두 다급하게 줄라 대는 통에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우선 구두라도 좀 벗고 보자고 해도 영 막무가내였다. 아내는 말없이 웃고만 있는 것으로 보아 녀석과는 이미 담합이 된 모양이었다.

“도대체 그 홈런왕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물기가 무섭게 녀석은 밖으로 튀어 나갔다. 그리고는 금세 대여섯 명이나 되는 조무래기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똑같은 플라스틱 완구가 들려 있는 것이었다. 꿈쩍없이 나는 행복하고 말했다.

“야, 나도 홈런왕이다!”

나로부터 천 원권 한 장을 전리품으로 얻은 녀석은 다시 폐거리들을 몰고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가 버렸다. 다음날 출퇴근길에서 나는 **한결같이 홈런왕을 휘두르며** 내닫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구경할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아파트촌의 분위기이자 속성이었던 셈인데 그 후에도 녀석은 **1주일도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해 왔고, 나는 또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해야만 했다.

“아빠, 태극호 사 줘. 봐, 애들두 다 가졌잖어? 나도 갖고 싶단 말야, 응 아빠…….”

녀석의 이 당당한 요구를 거절할 만큼 나는 마음이 독하지 못하다. 거절은커녕, 때때로는 품절이 되어서 녀석이 시무룩하게 빈손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녀석의 상심을 달래느라 전전긍긍하곤 했던 것이다. 그런 날이면 나는 영락없이 녀석의 놀이 상대가 돼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꽤거리도 녀석을 끼워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파트가(街) 특유의 속성에 대해 내가 은연중에 ㉠ **두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었다.

— 이동하, 「홍소」 —

27.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이사 오면서 생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을 아내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 ② ‘나’는 아내의 표정을 통해 아내가 첫째 녀석의 요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였다.
- ③ 첫째 녀석은 아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아파트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특정한 식품을 소비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기이하게 여겼다.
- ⑤ 아내는 독립가옥의 셋방살이보다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의 삶이 더 낫다고 여겼다.

28. [A]와 [B]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B]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중심으로, [B]는 인물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인물들 간에 심화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B]는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들 간의 대화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B]는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한 의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2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소외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② 꽤거리를 지어 다니며 타인을 따돌리는 첫째 녀석의 폭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③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④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마다 크게 상심하는 첫째 녀석의 유약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 ⑤ 첫째 녀석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칠 만큼 독하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70년대에 등장한 규격화된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형성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는 독립성과 편의성을 주기도 하였지만, 집단화된 생활과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홍소」에는 이런 아파트의 속성과 낮은 주거 환경에 맞닥뜨린 인물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 ①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내 아이들’이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진 것에서 아내는 아파트가 주는 독립성에 흡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이 집마다 붙어 있고, ‘어머니회’, ‘어머니 배구팀’, ‘어머니 합창단’ 등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집단화되어 가는 아파트 생활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똑같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군’을 보며 ‘차가움, 견고함, 메마름, 췌내 따위’를 ‘무겁게 의식’하는 것에서 규격화된 아파트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아이들’이 ‘한결같이 홈런왕을 휘두르’고 첫째 녀석이 ‘1주일이 멀다 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아이들조차 유행에 휩쓸리는 아파트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다른 ‘아낙네들’처럼 ‘화요일 오전은 원거리 시장에 나서는’ 아내를 보며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에서 ‘나’가 아파트의 편의성을 수용한 자신을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 상서 왈,
“내 아해는 행여 나를 속이지 말라.”
화 소저 대 왈,
“소녀 어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나 속이리이까. 과연 금일에 경물을 구경하고자 누상에 올랐더니, 우연히 화산 속에 약초 캐는 두 아해를 만나매 일만 가지 기이한 일이 있사와 십여 세 된 여자 약초 캐다가 애원히 통곡하니, 듣는 자로 하여금 비감할지라. 제가 듣고 비감하와 불러와 한번 보매, 실성한 병인이로되 용모 자태와 행동거지 결코 천인이 아닌고로 소회를 여러 번 따져 물은즉, 미친 체하여 세사를 알지 못한 듯하오나 오히려 그 본정이 나타나는지라. 소녀 이에 좌우를 물리치고 잘 타일러 문사온즉 과연 전일 항주 추관 여장의 귀중한 딸이요, 처사 관철의 외손이라. 여 공이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청현에 이르렀더니, 간신이 유 상서의

문생이라 하여 께하여 항주 추관을 하였더니, 도입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참화를 만나 혈혈한 어린 여자가 부친의 시신을 고향에 안장하고자 스스로 제 시랑 집 천비가 되었더니, 용모 태도가 아주 뛰어나기로 제 시랑이 그 미색과 용모를 사랑하여 풍류를 가르쳐 기방에 보내고자 하니, 달리 벗어날 길이 없는지라. 거짓 미친 체하여 녹발을 흡어 옥 같은 얼굴을 가리고 몸소 약초 캐러 다니며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통곡하니, 그 정사를 살피매 소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이로소이다.”

화 공 부부가 또한 크게 놀라 왈,
“가히 기특하도다. 내 여아의 어진 마음이여 아름답다.
[A] 그 여자의 신세 가련하도다. 알지 못하겠구나. 그 위인이 어떠하더냐.”

화 소저 대 왈,
“입으로 다 아뢰기 어려우나 제가 비록 지식이 없사와 일찍 눈에 찬 사람을 보지 못하였삽더니, 이 여자가 만일 예사롭고 인품이 범상하오면 어찌 가까이 지내오리까. 현철한 덕성이 용모에 나타나고 추상같은 기질이 당대에 가장 빼어나며,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한 여인이라.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 형제자매 되어 욕됨을 깨닫지 못하오리이까. 열 번 보고 백 번 헤아려도 이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보았고, 여자의 수행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오나 어찌 이 같은 여중 군자와 규중 옥인을 만나 그 법도를 본받지 아니하오리이까. 제 나이 젊으니 즐겨 사제지의를 정치 아니하온지라 부득이 형제지의를 맺고, 소녀는 생일이 여 씨보다 수 월이 더한고로 형이 되매, 관포지교*를 겸하고 또한 천지께 고하였사오니, 소녀가 만일 여 씨를 건지지 못하오면 마침내 세상 영육을 홀로 참예하지 아니하오려 하오니, 부디 부께서는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화 공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칭찬하여 왈,
“내 아해는 진실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이 범상치
[B] 아니하도다. 여 소저 규중 보옥이요, 네 또한 여중 호걸이라 이르리로다.”

화 소저가 예를 갖추어 일어나며 대 왈,
“소녀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다 아뢰지 못하나이다. 혹 모친이 도우사 반드시 후일 모일 날이 있사오리니, 부께서 친히 보시면 오늘 제 말이 헛되지 않음을 알으시리이다.”
말을 끝내자 여 소저가 쓴 ㉠ 작별시를 받들어 드리며 눈물이 떨어지니, 공이 부인으로 더불어 바빠 받아 보니 필법이 정묘한지라. 광채 유동하여 비단 위에 금수를 드리운 듯하니, 크게 놀라 다시 본즉, 재기 빼어나고 의사 광활하여 글을 쓰는 재주와 학식이 자기 여아로 더불어 비김에 한층이나 더한 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훗날 여 소저는 화 공 부부의 수양딸이 된다.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상회복과 혼약한 후, 화 소저가 천자의 후궁으로 부당하게 간택된다. 이에 화 공이 상소하나 하옥되고 여 소저가 입궐해 천자에게 항변한다.

상이 또 물어 가라사대,
“네 이제 아버지 삼년상을 마쳤거늘, 오히려 상복을 벗지 않아 선왕의 예법을 어기느뇨.”
여 소저 슬피하며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주 왈,
“부모를 위하는 정성은 상하 귀천이 없나니, 신첩이 아비 참상을 만난 후 몸은 남의 집 종이 되고 장례 물품들을 다만

유모에게 떠나보내니, 한 번도 하늘을 부르며 목 놓아 울지 못하옵고 변변치 못한 제사마저 지내지 못하였사오니,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과 뻘속까지 사무치는 원한이 언제나 맺혔사오며, 하물며 같은 하늘 아래 지낼 수 없는 원수를 갚지 못하였사오니, 큰 죄가 몸에 실렸는지라. 어찌 삼년상이 지났다 하고 몸에 화려한 의복을 걸치리꼬. 또 상씨 가문에 병례를 갖춰 행함은 사세 부득이 화 모와 부녀지의 있을 뿐 아니라 화 소저와 사생을 같이하고자 하늘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오니, 지금 온갖 형벌로 죽이실지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 부디 성상은 문무왕의 성덕을 본받으사 소녀가 품은 한을 돌아보옵시고, 천하 태평하고 기후가 순조로움을 상서로 아시고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시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아 만세를 누리리이다.**”

말을 마치고 다시 엎드려 두 번 절하니, 상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감동하시고 또한 슬퍼하사 이에 조서를 내리어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침을 일컬으시고, 즉시 화공을 풀어 주시어 복직시키고, 또 전임 향주 추관 여장이 본주에서 칼에 베어 죽었으니, 본도 자사로 하여금 바빠 자세히 조사하여 고하라 하시고, 또 상씨 가문에 친지를 내리셔서 두 소저와의 혼약함을 택일대로 바빠 성례하라 하시니 만조 제신과 백성이 황상의 어진 덕을 일컬고, 두 소저의 의기 충언을 탄복하니, 아름다운 소문이 원근에 자자하여 모르는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숙녀지기」 —

* 판포지교: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 소저는 여 소저의 내력을 듣고 그녀가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 온 이유를 이해했군.
- ② 화 소저는 여 소저로부터 여자로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여겼군.
- ③ 여 소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에 삼년상이 지났음에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④ 여 소저의 말을 듣고 천자는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군.
- ⑤ 천자가 여 소저의 원한을 풀어 주고자 여 소저 부친의 죽음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군.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대화 상대를 안타까워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그에 관한 배려심을 발휘하고 있다.
- ② [A]에서 대화 상대가 겪은 일을 염려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안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상대의 답변을 듣고 [B]에서 그 인물에 관한 평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에서 특정 인물을 예찬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답변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 ⑤ [A]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궁금해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사연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 소저의 성격이 변화한 것에 대한 화 공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 ② 화 공이 여 소저에 대해 품었던 경계심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화 소저가 소개한 여 소저의 인물됨에 대한 화 공의 생각을 강화해 주고 있다.
- ④ 화 소저가 슬퍼하는 연유와 관련하여 화 공이 품었던 의혹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화 공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여 소저의 면모를 제시해 화 공이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숙녀지기」는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서로 상대의 가치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지기’가 되어 신의를 지키는 이야기이다. 두 주인공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인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고 인(仁), 의(義)를 구현하며 신의를 지키고 있다. 인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겨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타인을 보살핌으로써 구현되고, 의는 올바른 것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함으로써 구현된다. 두 주인공이 효를 바탕으로 인, 의의 덕목을 발휘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을 갖춘 숙녀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 ① 화 소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한 데서 그녀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인의 덕목을 갖춘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② 화 소저가 여 소저의 ‘현철한 덕성’, ‘추상같은 기질’,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함을 말한 데서 그녀가 여 소저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지기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③ 화 소저가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라고 말한 데서 그녀가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여 소저가 천자에게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게 될 것이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의를 지향하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⑤ 여 소저가 ‘만세’를 위해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천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